

매출 부진 이마트 상무점 18년만에 폐점

고객에 영업 종료 알리지 않고 임대사업자에 계약 해지 통보 노조 "다음달 18일 폐점 앞두고 2주전 직원들 전출 희망 받아"

매출 부진을 겪은 이마트 광주상무점이 개점 18년 만인 오는 12월18일 폐점한다. 1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 등에 따르면 이마트 상무점은 오는 12월18일 영업종료를 앞두고 지난 달 중순부터 해당 점포 직원으로 부터 희망 전출지 접수 받고 있다. 직원들은 오는 22일 전후로 이마트 광산·봉선·동광주·광주점 등 광주지역 4개 점포로 옮기게 된다. 이마트 상무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90여 명으로, 15명은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무기계약직 형태로 고용됐다. 노조 측은 "2주 전 사측에서 높은 임차료와 매출 부진 등의 이유로 이마트 상무점 영업을 12월부터 종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원거리 점포를 배정받는 직원들의 경우 퇴사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며 점포 폐쇄 시 사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마트 상무점은 한 달 여 뒤에 폐점을 앞두고 있지만 고객에게 영업 종료 공지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점포 내 개인 임대사업자에 계약 중도해지를 통보했다. 이마트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약국·세탁소·여행사 등 8개 업체 모두는 내년 3월 말 임차계약 갱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점포를 빼야 하는 상황이다. 이마트 측에 건물을 빌려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난 10월2일 이미 '재개발 사업 운영사업자 선정 공모' 공고를 냈지만 사측은 그로부터 수 주 뒤에 직원들에게 폐점 소식을 알렸다. 상무점은 광주지

역 5개 이마트 가운데 유일하게 건물을 임대차한 점포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하 3층-지상6층 연면적 4만5416㎡(1만3738평) 규모 부동산에 대한 재개발 사업자 공모 공고를 낸 뒤 같은 달 8일 공동참여 형식(컨소시엄) 등 11개 업체로부터 참가의향서를 받았다. ㈜이마트는 지난 2분기 사상 첫 적자를 낸 뒤 임차 매장 가운데 매출이 좋지 않은 매장 순으로 폐점 수순을 밟고 있다. 올해 9월 이마트의 총 매출액은 1조 355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 4600억)보다 7.2% 떨어졌다. ㈜이마트 매출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할인점 9월 매출은 1조25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8% 감소한 수치다. 이마트 영업이익은 지난 2017년 5849억원에서 지난해 4628억원으로 20.8% 급감했다. ㈜이마트는 지난 달 15일 13개 점포의

토지 및 건물을 9524억8000만원에 처분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처분목적은 "보유자산 유통화를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 8월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점포 건물을 매각한 후 재임차해 운영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 방식의 자산 유통화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달 29일에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던 대형 할인매장 이마트 서부산점이 개점 22년 만에 영업을 종료했다. 신세계그룹 이마트는 1998년 광주 최초의 대형마트인 동광주점을 시작으로 2001년 상무점, 2004년 광산점, 2006년 광주점, 2007년 봉선점 등 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지역에는 롯데마트 4개점(수원·월드컵·첨단·상무)과 홈플러스 3개점(계림·동광주·하남) 등 11월 현재 12개 대형마트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포스코건설, 8000억대 풍향구역 재개발 사업 따내

조합원 52% 지지, 롯데건설 따돌려

'8000억원 대'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사업권을 각축 끝에 포스코건설이 따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9월 8000억원 규모의 광주시 북구 풍향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시공사 선정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958명 중 501명(52%)의 지지

를 얻어 경쟁했던 롯데건설을 따돌리고 사업권을 획득했다. 풍향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풍향동 600-1번지 일원 15만2317㎡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8477억원이며, 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 지상 최고 34층, 28개 동 3000가구의 아파트 단지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김치냉장고 '딤체' 최대 70만원 할인

위니아, 내달 13일까지 행사

대우위니아그룹의 위니아SLS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과 김장철을 앞두고 대규모 사은 행사인 '김장 FESTA'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200여개 딤체 전문점에서 다음달 13일까지 진행하며, 이 기간에 김치냉장고를 구입할 경우 최대 70만원 할인과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딤체를 구매하면 구매 제품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할인이 가능하다.

제휴카드로 결제할 때는 최대 20만원 카드 청구할인 및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1일부터 최고효율등급 가전 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액의 10%를 2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주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최대 70만원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위니아SLS는 행사 기간 동안 2020년형 딤체 신제품 구매한 고객 중 360명을 추첨해 자동차, 프리미엄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위니아 포인트 등 총 6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

위니아딤체 전문점에서 회원 가입 후 딤체 신제품을 구입하면 자동 응모되며, 당첨자 발표는 12월27일 위니아딤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지난 8일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R&D 협력사 테크데이' 행사에 참석한 알버트 비어만 사장이 협력사의 선행 신기술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기아차 제공>

현대·기아차, 협력사와 동반성장 강화 기술교류

연구개발 협력사 테크 페스티벌

현대·기아차가 협력사들과 동반성장 강화를 위한 기술 교류에 나섰다.

현대·기아차자동차는 지난 6-8일 경기도 화성 남양연구소에서 '2019 연구개발(R&D) 협력사 테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현대·기아차가 신기술 공유 및 각종 지원과 포상 등을 통해 협력사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협업 확대를 통한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협력사 선행 신기술과 스타트업 우수기술 전시 및 R&D 우수 협력사 포상 등을 실시하는 'R&D 협력사 테크데이'와 현대·기아차와 함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차량을 함께 전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한 'R&D 모터쇼'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R&D 협력사 테크데이'에서는 1·2차 협력사가 개발한 바다·샤시·전자·파워트레인 분야의 세계 최초 16건, 국내최초 14건 등 우수한 선행 신기술 총 39건이 소

개됐다. 자율주행 인지·판단 및 시물레이션 기술분야 등 스타트업의 우수기술 4건도 전시됐다.

'R&D 모터쇼'에서는 '미래를 함께 하는 R&D, 휴머니티를 향한 진보'를 슬로건으로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차량 및 플랫폼 등 100여대가 전시됐다. 특히 메인 전시장에는 친환경차, 고성능차, 해외 전용차 등 현대·기아차의 미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차량들이 대거 전시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시장금리에 대출 규제까지... 연말 대출시장 한파

한은 기준금리 인하 불구 반대 내년부터 새로운 예대율 규제

연말 대출 시장에 벌써 한파(寒波)가 불어닥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시장금리는 반대 방향을 향하고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는 연말로 가면서 점차 맹위를 떨치는 양상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달 1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1.5→1.25%)에도 아직 예금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낮췄지만, KB국민과 신한, 우리, KEB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동참하지 않고 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아예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14일자 고정금리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근 4주 사이 0.29~0.55%포인트 올랐다.

기준금리를 1-2회 인상했을 때 뒤따르는 수준의 오름 폭이다.

예금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대출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은행을 통한 유동성 추가 공급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금융기관 간 조단기금리인 롤금리를 낮추고 이어 장·단기 시장금리 하락, 예금·대출금리 하락 등 순

한 구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연결고리가 끊긴 것이다. 이렇게 되면 추가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도 떨어진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당일 연 1.320%에서 이달 8일 1.518%로 0.198%포인트 올랐다.

시중은행 입장에선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연말로 갈수록 불등의 불이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예대율(대출/예금 비율) 규제는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은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15% 하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주택대출로 돈을 버는 국내 시중은행들의 영업구조에서 이처럼 산식을 바꾸면 예대율이 100%를 넘기는 은행이 나올 수 있다. /연합뉴스

■ 로또복권 (제884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4	14	23	28	37	45	17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799,077,282				12
2	5개 숫자+ 보너스숫자일치	48,623,711				74
3	5개 숫자일치	1,630,338				2,207
4	4개 숫자일치	50,000				108,076
5	3개 숫자일치	5,000				1,817,654

'32년 집진기, 슬러지크리너 전문 제조업체'
www.yhbeco.co.kr

원가절감 가공품질향상 직업병예방

산업·공작기계 연/절삭유 탱크

청소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

* 머시닝센터, CNC선반, 기어가공기, 연삭기 등 수용성 비수용성 절삭유 모두 가능 *

▽ 절삭유 교체 X ▽ 미세 칩 제거
▽ 연/절삭유 부패방지 ▽ 슬러지 악취 제거

제조판매 / 장비렌탈 / 청소대행서비스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절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 TEL : (062) 953 - 2995
▶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 12차 501호
▶ TEL : (02) 2029 - 6400 ~ 3